

(주)한전KDN

"e-Biz Leader" 경영비전 선포

e-Business 사업부문 강화 및
신기술 개발 집중 투자

한전KDN(사장 鄭然東)은 "e-Biz Leader" 경영비전 선포와 함께 회사 이름을 한전정보네트웍에서 한전KDN으로 바꿔 새롭게 출발한다.

지난 4월 21일 한전KDN(www.kdn.com)은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전사원과 가족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CI 및 "e-Biz Leader" 비전 선포식을 갖고 21C 경영방침과 사업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전력정보통신분야 SI 전문기업으로서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간 IT부문 사업강화와 e-Business 분야의 토털 솔루션 제공 등 디지털 시대 첨단 정보통신 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e-Biz Leader" 선포식을 통해 한전KDN은 기존 공기업의 수동적 이미지에서 탈피, 능동적인 기업문화 실현과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e-Business 분야 사업의 강화로 디지털 시대 초우량 정보통신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정연동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및 우수

사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선택형 복지제도 실시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경영성과 공유를 위한 각종 계획을 함께 발표하였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19회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성황리에 마쳐**

전국 1만여 전기공사업체 전기기능인들의 경연대회인 제19회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월 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 특설 경기장에서 열려, 제주지회가 영예의 종합우승, 강원지회가 준우승, 서부지회가 종합 3위를 차지하고 성황리에 폐막됐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노동부, 한전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19개 지역 대표 76개팀 133명의 선수가 참가해 지회와 회사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시공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이날 외선 가공선부문·외선 지중선부문·동력배선부문·옥내배선부문의 4개 종목 경연대회에서 올해 최고의 전기공사기능인으로 뽑힌 42명의 입상자 전원에게 국가기술자격 기능사자격증이 주어졌다. 또 최우수 입

상자와 소속업체들에게는 각각 산업자원부 장관표창과 노동부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이날 대회에는 김창준 협회장, 김동원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 송지태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한국중 한전 판매사업단장, 최종윤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 19개 지회장과 업체관계자 500여명이 참관했다.

김창준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속업체와 지회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 달라"며 "참가 선수들이 전기공사 기술의 첨병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우수한 시공과 관리로 국가산업발전에 초석을 다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원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인 전기설비의 성실시공과 전기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올해로 19돌을 맞은 기능경기대회는 각 종목별로 ▲외선가공선부문 제주지회 현우전설(대표 이차건, 선수 고영준, 김태균, 윤용구) ▲외선지중선부문 강원지회 삼양전기통신(대표 김윤희, 선수 이정민, 정규남) ▲동력배선부문 서부지회 금성전기건설공사(대표 노기섭, 선수 박세춘) ▲옥내배선부문 제주지회 유성전기공사(대표

겸 선수 유석환) 등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광주지회는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참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케이디파워

수배전반 기술개발 선도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중앙연구소가 우리 나라 수배전반 업계의 신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케이디파워 중앙연구소는 '97년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 부설 수변전설비 연구소로 설립된 후,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변전실, 지능형 전력제어기 및 지능형 MCC Unit 등을 개발, 국내외 수배전반업계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다.

케이디파워 중앙연구소는 '한국의 중전기기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90년부터 전기공사의 전력시설에 대한 현장실무기술 축적과 인터넷이 접목된 최첨단수배전반과 'Web 기반 실시간 전력관리시스템(i KEN)'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전력설비를 자유자재로 제어·운전·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디파워 중앙연구소는 앞으로도 Web기반 실시간 전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피크, 역률, 불평형률, 전력량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가적 총합 에너지 관리(EMS)를 지역별, 그룹별, 산업별로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넷 기반기술의 복합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 학술대회 개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무주서

대한전기학회(회장 김광배)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2000년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기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참가자들의 논문발표 외에도 전기공학관련 영상자료 상영 등으로 다채롭게 꾸밀 계획이다.

전기학회는 6월 10일까지 행사 참가자들의 논문을 접수받으며 6월 19일까지 예비등록을 마감한다고 한다.

행사일정, 발표분야 등은 다음과 같다.

1. 행사일정

2000년 7월 18일(화)~7월 20일(목) :
3박 4일간

▶특별이벤트 : 7월 18일(화)

-산학협동 Session

-벤처기업의 Poster 전시 및 발표회

-전기공학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학회 분리에 대한 홍보 및 토론회

▶전야제 및 개회식 : 7월 18일(화)

▶임시총회 : 7월 19일(수)

▶학술대회 : 7월 19일(수)~20일(목)

▶가족관광 : 7월 19일(수)

2. 발표분야

전기기기, 제어계측, 전력계통, 전기재료, 방전 및 고전압, 컴퓨터 및 인공지능, 전력전자, 로봇틱스 및 자동화, 회로 및 시스템, MEMS, 전기철도, 광전자 및 전자파, 의용전기시스템 등 전기공학 전 분야

※학술논문이 아니더라도 산업체의 기술개발사례, 기술동향, 기술성과 등에 대한 원고도 접수함.

3. 행사장소

무주리조트(전북 무주군에 위치)

대한전선(주)

이라크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최근 현대종합상사(대표: 정재관)를 통해 이라크 전력청이 발주한 132kV 초고압전력케이블 200km 입찰에서 유럽 등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전선측은 이번 수주와 관련, 지난 '90년대 초반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한국업체에 발주한 인프라부문 프로젝트

트 중 최초의 초대형급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또 수주한 케이블을 올해 안으로 모두 제작, 전량을 이라크 전력청에 인도할 계획이어서 초고압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현대종합상사는 이와 함께 이번을 계기로 최근 들어 이라크가 그 동안 중단했던 석유, 전력, 통신 등 핵심사업 분야의 개보수와 인프라 복구 사업용 설비의 구매사업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측은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라크 시장에 대한 영업확대와 신규 영업 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장기 출장자 파견에 이어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조사단도 현지로 파견기로 했다.

한편, 대한전선, 대우통신, 대성전선, 동양전선 등 4개사는 파워콤이 발주한 500억원 규모의 광케이블을 공동 수주했다.

지난 1월 설립된 한전의 정보통신 자회사인 파워콤의 통신망 확충에 따라 발주된 이번 입찰은 3월초부터 3주 동안 가격협상에 들어가 이들 4개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콤측은 “이번 입찰은 지역별 단가계약 형태로 지역에 따라 광케이블 수요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납품하는 방식으로 계약체

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서울 경기권, 대우통신은 영남권, 대성전선은 충청 강원권, 동양전선은 호남 제주권에 각각 공급케 됐다.

한국전력기술(주)

강기식 박사 IAEA 진흥
계측제어기술 개발담당관에
임명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분야 설계 전문가인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설계개발단의 강기식박사를 IAEA 사무국 정규직원으로 채용키로 최근 확정했다.

강기식박사의 이번 IAEA 진출은 원전 계측분야 국제 전문가 48명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성사된 것으로, 국내 원전기술의 위상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강박사는 IAEA 사무국 원자력발전국에서 계측제어분야 기술개발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되며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컴퓨터시스템 및 첨단 계측제어설비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근무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상 올 9월경부터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만료 후 연장도 가능

하다.

최근 원전의 설계기술은 운전원의 인적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기계설비와 인간의 연계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디지털 제어설비기술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AEA는 이와 같은 첨단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 회원국의 원전 설계, 운전 컴퓨터시스템 및 첨단 계측제어설비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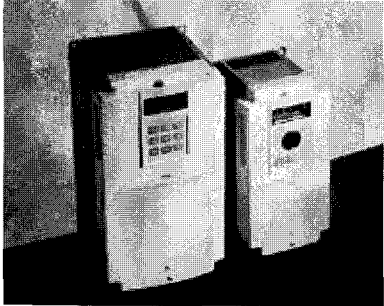
강박사는 한국전력기술(주)에서 15년간 원전설계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영광 1, 2호기 및 울진 3, 4호기의 설계를 담당했으며 원전설계와 관련된 15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LG산전(주)

인버터 신제품 출시

LG산전(대표: 孫基洛 부회장)은 최근 수출전략형 모델 인버터의 스타버트-IS5 20기종(1~30HP; 200V/400V 계열) 개발을 완료, 6월부터 국내·외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약 8억원을 투입, 개발한 스타버트-IS5 시리즈는 기존의 스타버트-IS3에 비하여 크기를 30% 정



현대중공업(주)

글로벌 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현 대중공업(대표: 趙忠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조직의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CTO(Chief Technologist Officer/기술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한 「해외기술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글로벌 기술개발 네트워크를 구축, 적극적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선진기술을 획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이 R&D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한 것은 지난 해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 2010」을 수립하면서 밝힌 바 있는 국내 5개, 해외 6개의 연구소 확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확대로 고급 원천기술 획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선박해양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기전연구소 등 운영중인 3개 연구소와 해외 기술거점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집중화 및 효율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내년까지 1단계로 해외 기술정보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해 11월 기초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 크릴로프연구소와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선박고속화기술 및 추진, 저항 등에 대한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 3월 이 연구소가 소재한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기술지사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짜포로제(Zaporozhye)에는 765kV 변압기 기술 도입을 위한 정보거점을 마련하는 등 기술거점 2곳을 마련했으며,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에는 발전기, 전동기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팀을 구성하여 5월부터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미국, 일본, 유럽에 추가로 기술정보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에는 정보통신, 계측제어기기, 환경기술, 석유화학분야에서, 일본에는 생산기반기술, 자동화, 동작기계, 냉동공조, 산업디자인분야에서, 유럽에는 산업기계, 요소부품, 중전기기, 조선분야에서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연구원, 엔지니어 등을 영입하여 취약기술을 보완하고 주요 산업별로 기술고문을 고용,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으며, 해외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도 축소했으며 센서리스 벡터제어 알고리즘 채택으로 범용 인버터의 문제점이던 저속에서의 토크특성 저하 및 부하변동에 따른 전동기의 속도 변동 현상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또한, 오토 튜닝 기능 채택으로 최적의 운전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확장 입·출력 보드 및 다양한 통신 옵션(RS232/485, DeviceNet, Modbus RTU, Profibus) 등 풍부한 옵션 확보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제품은 PID(비례/적분/미분)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플랜트(Plant) 또는 프로세스(유량, 온도, 압력 등) 제어와 같은 정밀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LG산전은 국내용 제품에는 국산 전동기 특성에 적합한 전동기 과열보호기능을 탑재하여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LG산전은 이번 출시하는 스타버트-IS5에서 내년에 약 200여 억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단계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외 엔지니어링센터와 제품연구소를 설립하여 해양, 플랜트분야 엔지니어링 및 개발연구 등을 중점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기본설계, 신제품 기술의 확립단계인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미래 선도기술 연구와 공통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공통기반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의 사업부 및 연구소간 글로벌 기술 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국내 업계로는 최초로 인도에 저압차단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측에 따르면, 최근 산업용 배전기기의 핵심 자재인 배선용 차단기와 기중차단기를 인도의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Spaceage Switchgears)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 기술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수출은 저압차단기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이 올해부터 오는 2006년 1월까지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에 단계별로 차단기 제작에 관한 제반기술을 전수해주는 대가로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로부터 매년 200만불 상당의 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차 계약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산제품에 대한 순판매가의 3~7.5%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는 아랍 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에이지 그룹 산하의 인도 내 최대의 배전반 전문생산업체로, 현대중공업은 스페이스에이지사가 기술자립을 이룩할 때까지 제반기술 전수 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인도 저압차단기시장은 현재 약 1천억 원 수준이나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어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을 노리는 세계적 메이커들이 앞다퉈 진출을 꾀하는 곳이기도 한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술 수출로 인도시장을 선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인도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대원전선(주)

인터넷사업 진출

대원전선(대표 서명환)이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성진아이티에스(대표 박태원) 지분 51%를 확보하고 인터넷 비즈니스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서명환 사장과 박태원 사장은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양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조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원전선은 이로써 성진 I.T.S의 경영권 확보와 함께 전력·통신케이블제조 주력에서 인터넷서비스 관련정보통신(IT) 분야와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서명환 사장은 투자조인식을 통해 “지난 '98년 부도업체인 대원전선을 인수, 화의 종료단계를 거쳐 올해부터 광케이블 부문 투자 등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성진 I.T.S 인수는 이 같은 일환에 따른 사업다각화의 첫번째 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인터넷사업에 진출케 됐다”고 투자배경을 밝혔다.

대원전선은 '99년 12월 해외전환사채 1400만 달러를 유치, 채무를 전액 상환하고 화의업체에서 벗어났다. 이 회사는 올해 광 및 LAN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74억원을 투자하는 등 신규진출사업에 힘입어 매출목표 920억원을 잡고 있다.

성진 I.T.S는 아리랑 TV 해외 위성방송 인터넷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 문화관광 포탈 사이트 구축,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인터넷 마케팅 지원, 영어회화능력평가 시스템(ESPT) 구축 등 IT 사업으로 20억원 규모의 매출과 올해 안에 제3시장에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